

## 콜텍 기타노동자와 함께 하는 집중 연대의 날(1/30/ 하루종일) 함께 해주세요!

Kim Ranghee

2019년 1월 29일 오후 8:00

연대로 끝장내자, 투쟁으로 노래하자  
1월 30일 콜텍지회 하루종일 연대투쟁

13년의 투쟁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아무리 굳은 의지의 인간이라도 13년을 해고자로 살면서 올곧게 투쟁을 벌인다는 것은 힘들고, 서럽고, 외로운 길입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가 그 길에서 4381일(29일 현재) 동안 투쟁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연대의 힘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기타 만드는 노동자들답게 음악의 힘으로 상처를 치유하며 오늘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난 8일 정년이 가기 전에 13년 싸움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목표로 끝장투쟁을 시작한 콜텍지회를 위해 오는 30일(수) “정리하고 13년, 일삼(13)을 되찾자”라는 주제로 집중연대투쟁을 벌입니다. 서울 등촌동 콜텍 본사 앞(서울 강서구 화곡로61길 59) 농성 천막을 중심으로 30일 하루종일 콜텍지회와 함께해온 연대의 손길들이 모두 모여 집회, 행진,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이어나갑니다.

■ 콜텍 노사교섭 보고 및 전국행동-국제행동-직접행동 선포 기자회견“콜텍 투쟁 13년, 박영호가 책임져라”  
13시 30분, 등촌동 콜텍 본사 앞  
발언:

1. 교섭상황 보고(금속노조 이승열 부위원장)
2. 투쟁 결의(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이인근 지회장)
3. 뮤지션 연대 발언(신대철)
4. 문화예술 연대 발언(문화연대 원용진 대표)
5. 공대위 투쟁 발언 - 각 단위 대표자
6. 회견문 낭독(공대위 대표자)

■ 13년을 함께 잇는 130m 현수막 거리 퍼포먼스

14시부터, 정리하고 13년을 상징하는 130미터 거리에 다양한 연대의 목소리를 담은 각종 현수막을 게시하는 상징행위를 진행합니다.

■ 콜텍사태해결촉구 금속노동자결의대회

15시, 등촌동 콜텍 본사 앞

콜텍지회의 투쟁과 교섭에 힘을 더하기 위해 수도권 조합원과 대전충북지역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모여 끝장투쟁 승리의 결의를 다지는 집회를 개최합니다.

■ 콜텍 동네한바퀴, 항의서한 전달

16시 30분부터, 연대를 위해 달려온 노동자시민들이 동네 한바퀴를 돌며 콜텍 본사 주변의 지역주민들에게 콜텍 노동자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알립니다. 마지막에는 본사 항의 서한 전달로 마무리합니다.

■ 각계각층 17인 이어말하기

17시부터는 각계각층 인사 17인이 콜텍 투쟁의 정당성과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는 회사의 부당함을 고발하는 이어말하기 대회를 진행합니다. 참여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2. 한상균(쌍용차 해고자, 민주노총 전위원장)
3. 민선(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4. 김정태(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
5. 김정욱(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생활위원, 예수회신부님)
6. 용혜인(노동당 대표)
7. 조희주(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대표)
8. 이종걸(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9. 김수억(비정규직 1100만 공동투쟁단,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10. 양한웅(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11. 이덕우(노동정치사람 대표)

12. 오진호(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
13. 김태연(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14. 이동민(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15. 박성율(목사, 강원생명평화기도회 토지난민연대)
16. 이승열(금속노조 부위원장)
17.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콜텍 친구들 문화제

18시 30분부터는 인디밴드 윈크차일드태퍼스, 바나나몽키스패너, 버스트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문화공연을 엽니다. 국내외 다양한 뮤지션들이 연대와 지지를 밝혔고, 국내 중견 기타리스트들이 연대 공연을 열기도 했던 콜텍지회의 투쟁은 언제나 그렇듯이 음악과 함께 마무리합니다.

**콜텍 끝장투쟁** 콜텍 본사  
**집중연대의 날!** 2019.1.30.  
**수요일**

① 14:00-15:00 13년을 함께 잇는 130m원수막 거리 퍼포먼스	② 15:00-16:30 금속노조 집회	③ 16:30-17:00 콜텍 동선 1300m 행진	④ 17:00-18:00 각계각층 13인 이어말하기
⑤ 19:00-20:00 콜텍 친구들 문화제			

**No Workers  
No Music**

신청장고에 함께 해주세요.  
 국내 희망기 정리하고 회사 콜텍  
 "장난이 되기 전에 복직을"  
 1인당 5,000원  
 마감  
 1월25일(금)  
 신청  
<http://bit.ly/콜텍끝장투쟁선언>  
 계좌번호  
 카카오톡  
 3333-09387-8421 김경봉  
 문의  
 문화연대 정유하  
 010-9270-0830

**정리하고 13년,  
일삼13을 되찾자**